

백승근 대광위원장, “건설현장 안전·방역관리 최고 수준으로”

- 16일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현장 찾아 안전관리·방역대응 철저 강조 -

-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6일(수) ‘별내선 복선전철’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및 방역대응 상황을 점검하고,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- 백 위원장은 경기도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현황과 안전관리 상황 등을 보고받은 뒤, 지하정거장과 한강 하저터널 현장으로 이동하여 건설장비 주변 안전조치 및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실태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면서,
 - “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철저한 확인과 점검이 중요하다”면서 “해빙기에 대비하여 지하수 유출, 사면, 가시설 등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 - 또한, “2월 들어 오미크론 확진세가 급증하고 감염자 수가 하루 5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방역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- 마지막으로, 백 위원장은 “서울지하철 8호선을 연장하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을 통해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,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”된다면서,
 - 앞으로도 광역교통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2022. 2. 16.

국토교통부 대변인